

# 조모의 손자녀 돌봄만족과 관련변인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취업모가정의 동거조모와 비동거조모의 비교-†

## Grandmothers' Caregiving Satisfaction of Raising Grandchildren and the Related Variables

이영숙\*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Yi, Yeong Sug

School of Human Ecology, Kunsa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understand grandmothers' satisfaction of caring for working mothers' children and the influence of related variables with regard to living arrangem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45 grandmothers who have been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for more than 6 months.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 *t*-test, *x*<sup>2</sup>-tes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Degree of satisfaction was lower in grandmothers who were living with their children than those who were not.

Second, the variables affecting the grandmothers living with their children were economic status, extent of care giving activities, and social support, wherein social support proved to be the most influential. In the case of those not living with their children, the significant variables were motive and social support, motive being more influential. This result indicates that affecting variables differ by the grandmothers' living arrangements, and thus the strategy to enhance their care giving satisfaction should differ as well, based on the findings.

**Keywords** : working mothers, caregiving satisfaction, extent of caregiving activities, caregiving motive

### I. 서론

본 연구는 취업모의 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돌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더 궁극적으로는 조모의 돌보는 환경을 손자녀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와 동거하지않는 경우로 나누어 돌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환경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취업한 기혼여성은 전체 기혼여성의 49.9%에 이르고 있다(김우영, 2008). 기혼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는 그 동안 이들 여성이 가정 내에서 행해왔던 여러 역할들을 대행해줄 사람이나 시설을 필요로 하였고 이런 경우 조모는 취업모 대신 자녀를 돌보아 주는 대안 인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부 모두 취업한 맞벌이가정의 자녀 돌봄 문제를 사회적으로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군산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Yi, Yeong Sug

Tel: 063-469-4623, Fax: 063-469-4620

E-mail: ysyi@kunsan.ac.kr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여러 보육기관이 설립되어있으나 취업여성은 다양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을 뿐더러 자녀에게는 어머니같은 역할을 대행해줄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을 기대하기에 이러한 조건에 알맞은 보육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돌보기는 과거 부모가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보편화했던 시대에는 부모 외에도 자녀를 돌볼 사람이 있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나 오늘날 핵가족에서는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로서 기혼여성이 취업한 가정에서는 커다란 어려움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취업여성들이 가정 일과 직장 일을 함께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을 자녀양육으로 지정한 비율이 46.4%에 이르고 있는데(통계청, 2005), 이 어려움이 조모의 손자녀돌보기로 직결되어 있는 셈이다. 추가출산계획이 있는 기혼취업여성이 시부모나 친정부모의 지원을 바라는 비율이 55.9%에 이르고, 취업기혼여성의 출산 후 자녀를 돌보아줄 사람으로 시부모나 친정부모를 지정한 비율도 58.8%(통계청, 2005)나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부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 여성의 70.9%가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보육문제 이렇게 해결을”, 2009), 조모가 취업모의 손자녀를 키우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되고 있다.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조모에게 또 한 번의 부모역할에 따르는 많은 책임이 지워지는 것이므로 에너지가 부족한 나이든 사람에게는 힘겨울 수 있다. 실제로 손자녀 돌봄은 여자노인에게 건강 악화와 위기를 경험하게도 하여 만성적인 피로와 건강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고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시간재정적인 자원의 부족과 신체적인 건강문제가 심리적인 건강을 악화시키는 등(김문정, 2006) 생활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힘듦에도 불구하고 조모들이 손자녀를 돌보는 이유는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취업활동을 도와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정미경, 2006; 김승용, 정미경, 2006; 배지희 외, 2008). 이 점을 어린 자녀의 돌보기가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가져오므로 조모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믿음직한 방법이라는 취업모의 입장(정미경, 2006)과 관련지어 볼 때 조모와 취업모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첫 단계가 조모의 손자녀 돌봄과 관련된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다.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며 긍정적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이 조모와 취업모 모두에게 권장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돌봄만족감이란 돌봄경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대변하는 개념으로 돌봄 경험으로부터 얻게 되는 긍정적 정서나 바람직한 측면들을 의미하는 개념(김연수, 2006)으로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면서 갖는 경험을 알아보기에 적합하다. 손자녀를 돌보는 경험이 시간과 에너지 등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 역할을 담당해야했던 부모역할을 할 때보다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손자녀에게 가질 수 있는 조모로서의 역할이 주는 만족감 및 즐거움(Dolbin-MacNab, 2006)에도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수 있으나 이들은 조손가족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취업모의 자녀를 돌보는 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조손가족의 조모에 대한 연구는 조모가 부모 역할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로서 돌봄에 따른 부담감 등 부정적 경험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가 많으며, 최근에 이르러 손자녀를 돌볼 때 갖는 보상 등 긍정적 경험을 가지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박경애, 2007; 배진희, 2007; 한경혜 외, 2008). 그러나 조모가 취업모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조손가족의 조모와는 다른 상황이며, 더구나 기혼여성의 취업률의 증가가 출산율의 저하와 관련지어져 있는 오늘날 기혼여성의 사회진출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 그리고 출산율 저하예방 측면에서 취업모의 자녀를 돌보아주는 조모의 경험을 긍정적 차원에서 조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취업여성의 자녀를 돌보아주는 상황은 손자녀 가족과 동거하며 돌보는 경우와 동거하지 않고 손자녀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일정시간에만 돌보아주는 경우로 대별된다. 가족과의 동거여부 등 생활환경은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을 고려할 때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돌봄만족에 손자녀가족과의 동거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족과의 동거여부와 노후의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파악을 시도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자녀에 의해 부양을 받는 경우에 관심을 기울여 살펴본 연구들이다. 그러나 취업모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모의 돌봄만족은 조모가 부양을 받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대두된다. 실제로 조모가 손자녀를 돌볼 때 손자녀 가족과의 동거여부에 따라 돌보는 영역이 달라지며(한혜자 외, 2001), 가족들도 조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황혜정, 2003)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돌봄과 관련된 변인들이 동거여부에 따라 돌봄만족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취업모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돌봄만족 정도는 어떠한가? 이는 동거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돌봄만족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는 동거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Ⅱ. 이론적 배경

### 1. 조모의 손자녀 돌봄과 돌봄만족도

전통적 사회에서 조모는 손자녀 양육에 참여함으로써 노후의 정서적 심리적인 소외감을 잊고 자녀와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의지가 고양되며 손자녀가 주는 사랑과 즐거움으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므로(김문정, 2006) 조모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왔다. 오늘날 여성노인들 중 일부는 여전히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노후 생활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노인들은 여가에 하는 활동으로 ‘손자녀 돌보기’를 가장 많이 하며, 조모는 손자녀 돌보기의 좋은 점으로 ‘즐겁고 외롭지 않아서’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김승용, 정미경, 2006). 그러나 조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자녀를 돌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조모는 과거와 달리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정미경, 2006),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년 또는 노년기에 자신의 취미를 위한 시간을 갖기를 기대하며 자신을 위한 자유시간을 갖고 취미생활 등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Bowers & Myers, 1999; Orb & Davey, 2005) 손자녀 돌봄에 대한 생각이 이전과는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취업모의 자녀를 돌보아주는 조모가 갖는 만족정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대두된다. 만일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며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면 손자녀를 돌보려는 의지가 지속되며 이는 취업모에게 출산 의지를 갖게 하여(통계청, 2005) 이와 같은 유형의 자녀 돌보기가 주위에 파급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조모의 손자녀돌보기가 과거처럼 당연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취업모가 손

자녀 돌봄을 의지할 곳은 부모뿐이라든지, 노인들에게 교육을 시켜 손자녀를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키우도록 하는 주장도 있을 만큼 조모의 손자녀돌보기에 대한 요구는 대단하기(“보육문제 이렇게 해결을”, 2009)때문에 취업모 가정에서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일은 당분간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기에 더욱 더 필요하다.

한편 손자녀를 돌보아주는 조모는 손자녀 가족과 동거하며 돌보는 경우도 있고 낮 동안이나 취업모가 직업에 종사하는 일정시간만 돌보아주는 경우로 대별된다. 이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부모와의 동거를 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부모들도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전통방식의 효과는 다른 방식의 효를 원하고 있으며(이성용, 2006), 이 결과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노인만 따로 사는 비율이 2008년 현재 60.2%에 이르고 있다(2008, 통계청). 따라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돌봄만족이 손자녀 가족과의 동거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성인자녀와의 동거여부와 노후의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한 선행연구(한경혜, 윤순덕, 2001)도 지적인 바와 같이 노인이 느끼는 삶의 질은 단순히 자녀와의 동거여부뿐 아니라 동거여부에 따른 상황적 요구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을 밝히고자 시도한 기존의 연구들(권중돈, 조주연, 2000; 서경현, 김영숙, 2003; 정순돌, 2003)은 노인이 부양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조모의 동거여부에 따른 돌봄만족을 조사한 결과, 조부모가 손자녀를 위하여 낮 동안만 돌보기를 할 때와 같이 제한적인 선 안에서 이루어질 때 만족한다는 결과(Thomas, 1986)나 24시간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돌봄 만족도는 일정시간만 돌보는 조모의 만족도보다 낮다고 밝힌 결과(Bowers & Myers, 1999)들은 조모의 주거상황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성인자녀와의 별도 주거를 규범화하는 서구에서 조사된 것이다. 따라서 부모부양을 전제로 한 동거를 규범화한 우리 사회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가 손자녀가족과 동거하며 돌보는지 또는 독립된 주거에서 돌보는지에 따라 조모의 돌봄만족에는 다른 요인이 작용하리라고 생각되어 조모의 돌봄만족을 손자녀가족과의 동거여부에 따른 비교를 시도하였다.

## 2. 손자녀돌봄 만족과의 관련변인

취업모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돌봄만족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경험을 다른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조모의 부정적인 경험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소수의 연구만이 심리적 안녕, 심리적 복지, 생활만족도, 돌봄 보상감등의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들을 참조하여 관련변인을 배경변인, 자원변인, 그리고 돌봄상황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1) 조모 배경변인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배경변인으로 나이와 배우자유무가 포함되었다. 먼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연령이 비교적 젊을수록 신체적 활동이 더 가능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손자녀를 돌본다고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젊은 조모의 가치관이나 실제 생활을 살펴볼 때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적 시간에 더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생각하면 젊은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예측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성향은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 조모의 연령이 생활만족도나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건강이나 경제상태 등을 통제하고 연령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Goodman, 2006)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연령과 조모의 심리적복지감과의 관련성은 순수한 연령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건강 등 다른 변수와의 관련성을 고려해야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조모의 돌봄만족에 미치는 배우자의 존재는 배우자유무가 조모의 심리적 안녕,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김미영, 2001)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배우자유무는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며 느끼는 만족감과 관련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자원변인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자원 변인은 교육정도, 주관적 경제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사회적지지로 구성되었다. 이에 관한 대부분 선행연구들은 교육정도, 주

관적 경제수준, 건강상태를 배경변인으로 살펴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원과 돌봄 상황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이를 자원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또는 환경적 자원은 조모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갖도록 작용하여, 자원을 더 가진 조모는 손자녀를 돌볼 때 스트레스를 덜 받고 부담을 적게 느낀다고 한다(Bowers & Myers, 1999). 구체적으로, 조부모의 학력이 무학보다 중졸이상의 학력일 때 돌봄 보상감이 높다는 결과(김미영, 2001)는 교육정도와 돌봄만족의 관련성을 추측하게 한다. 빈곤수준이 높음은 돌보는 자에게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가족환경을 제공하기가 어렵기에(Oburu, 2005) 생활수준은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오진아, 2005), 경제적 여건이 양육 보상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박경애, 2007; 배진희, 2007; 한경혜 등, 2008)로도 돌봄만족과 생활수준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건강은 노년기의 적응에 기본적인 자원이므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더구나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는 기본적인 생활 이외에 손자녀를 돌보아야하는 역할이 추가되므로 건강은 손자녀 돌보기에 필수적인 자원이 된다. 실제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심리적복지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조병은 외, 2002; 배진희, 2007). 우리나라 조부모들도 손자녀 양육 후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응답이 많았고(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지난 일년간 겪었던 건강문제가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임(오진아, 2005)을 보아도 조모의 건강과 돌봄 만족은 관련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일은 원래 조모가 책임지는 일로 기대되는 일은 아니므로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지지가 클수록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김미혜, 김혜선, 2004), 손자녀를 돌보는 부담감과 사회적 지원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사회적 지원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부담감을 완화시키며 손자녀를 돌보는 기쁨과 보람을 인지하게 되는 보상감에도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권인수, 2000; 박경애, 2007)을 시사한다. 그런데 노년기에는 가족을 포함한 비공식적 지원에 대한 이용정도가 공식적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어(이영자, 1999) 한국의 조모들은 특히

가족의 지지가 조모의 생활만족도나 심리적 안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배진희, 2007)으로 밝혀졌다.

### 3) 돌봄상황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상황에 관련된 변인으로 조모와 손자녀의 관계, 돌봄의 자발적동기, 그리고 돌봄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상황과 관련지어 고려되는 조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우리나라 가족에서 전통적으로 조모와 친손이 동거하는 것이 규범화되어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취업모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 시모뿐 아니라 친정모도 적지 않음으로 나타나고 있어(백경숙, 김영란, 2006) 조모가 돌보는 손자녀가 친손인지 외손인지가 돌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최근에 손자녀를 돌보지 않는 조모에게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지 않는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외손이기 때문에’라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정미경, 2006) 친손과 외손을 구별하는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동거하기 때문에’ 손자녀를 돌본다는 응답과도 관련지어볼 때 손자녀가족과의 동거여부는 친손인지 외손인지에 따라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오늘날 조모가 취업모의 자녀를 돌보아주는 것은 조모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자녀의 부탁 등 타의에 의해 이루어진 일일 수도 있다. 동기는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을 시작하고, 일단 시작된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내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하므로 손자녀를 돌보는 것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했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돌봄에 따른 만족이 다를 것이다. 실제로 손자녀양육에 보람을 느끼는 노인이 그저 그렇다고 한 노인보다 행복감을 더 느꼈고 우울감을 덜 느끼며(백경숙, 김영란, 2006), 손자녀 양육수행이 만족스러운 조모가 그렇지 않은 조모에 비해 정신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것(김미영, 2001; 백경숙, 김영란, 2006)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아주는 정도와 돌봄만족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는 조부모라 할지라도 그 책임에 어느 정도 선이 지켜져야 조부모역할 만족이 극대화된다는 주장(Thomas, 1986)은 조모에게 힘들지 않을 정도의 돌봄에 만족을 느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모 가정에서

대리모역할을 하는 조모의 역할은 비취업모 가정에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많은 역할을 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하는 반면 피곤, 고립, 사생활감소 등의 어려움을 가진다고 한다(이미숙 외, 2004). 이는 조모의 돌봄 수행 정도가 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는 현재 6개월 이상 손자녀를 돌보아주고 있는 조모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들이 돌보아주는 손자녀는 만 3세-8세로 부모가 모두 취업한 맞벌이부부의 자녀이다. 2009년 3월 9일부터 4월 1일까지 전라북도 군산시에 거주하는 조모 280명을 조사하여 부실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는 254명이 사용되었다. 조사는 조사대상자들이 직접 응답하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조모의 배경변인과 돌봄 관련변인 및 만족도를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 1) 종속변인: 돌봄만족

돌봄만족은 ‘손자녀를 돌보면서 조모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정도’로 정의하고, 선행연구(김연수, 2006; 박경애, 2007)를 참고로 하여 4개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점수로 되어있으며,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5로 나타났다.

#### 2) 독립변인

##### ① 배경변인

배경변인인 나이는 만 나이를 기록하도록 하고, 결혼상태는 배우자의 유무로 측정하였다. 결혼상태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1로, 사별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0으로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 ② 자원

돌봄의 자원을 묻는 질문 중 건강과 경제상태는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건강상태와 경제상태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지지는 선행연구(최해경, 2002; 김혜선, 2005)를 참고로 가족이나 주위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지지 각 2문항씩 포함시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5이다.

## ③ 돌봄상황

손자녀와의 관계는 친손 또는 외손인지를 묻는 질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친손과 외손 모두를 돌보아주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손자녀 돌봄동기는 손자녀를 돌보게 된 동기가 개인 내부에서 일어난 욕구인지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조모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인지 또는 자녀의 부탁 등 주위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비자발적인 것인지를 묻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돌봄 정도는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는 정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돌봄정도는 선행연구(박화윤, 이영숙, 1999)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고로 취업모의 자녀를 돌보는 역할수행에 알아보는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3이다.

##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PC-WIN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 검증,  $\chi^2$ , 상관관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51-78세로 평균연령은 63.09세이다.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조모가 없는 조모보다 월등히 많았

<표 1> 동거별 조모의 특성

		계	동거	비동거	검증
나이	평균나이	63.09 (SD=5.82)	63.66 (SD=5.23)	62.40 (SD=6.42)	$t = 1.73$
결혼 상태	배우자 유	171 (67.6)	91(65.5%)	80(70.2%)	$\chi^2 = .63$
	배우자 무	82 (32.4)	48(34.5%)	34(29.8%)	
	소계	253(100.0)	139(100.0)	114(100.0)	
교육 정도	초등 졸 이하	58 (22.9)	36(26.1%)	22(19.1%)	$\chi^2 = 3.45$
	중 고졸	85 (33.6)	49(35.5%)	36(31.3%)	
	대졸 이상	110 (43.5)	53(38.4%)	57(49.6%)	
	소계	253(100.0)	138(100.0)	115(100.0)	
경제 형편	나쁜 편	26 (10.2)	20(14.4%)	6 (5.2%)	$\chi^2 = 4.84$
	보통	165 (65.0)	83(59.7%)	82(71.3%)	
	좋은 편	63 (24.8)	36(25.9%)	27(23.5%)	
	소계	254(100.0)	139(100.0)	115(100.0)	
건강 상태	나쁜 편	39 (15.5)	28(20.1%)	11 (9.7%)	$\chi^2 = 4.43$
	보통	104 (40.8)	57(41.0%)	47(41.6%)	
	좋은 편	109 (42.7)	54(38.9%)	55(48.7%)	
	소계	252(100.0)	132(100.0)	106(100.0)	

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43.5%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졸업의 낮은 학력을 가진 조모의 비율이 22.9%이었다. 주관적으로 지각한 경제수준은 보통이라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건강상태는 좋다고 지각하는 비율(42.7%)과 보통이라는 비율(40.8%)이 비슷하였으며 나쁜 편이라는 응답은 15.5%로 비교적 적었다.

조모가 가진 특성을 손자녀 가족과 동거하는 조모와 동거하지 않으며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를 비교해 본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거조모가 비동거조모보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등 노후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에게서 나타난 특성을 지니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본 조사대상 중 손자녀 가족과 동거하는 조모의 동거이유는 특별히 조모가 부양받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동거여부가 조모의 특성 때문에 결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2. 동거여부에 따른 관련변인의 특성

### 1) 지지

취업모의 자녀를 돌보아주는 조모가 가족이나 친지등 주위사람들로부터 받는 지지는 어느 정도인지를 본 결과 5점 만점에 3.57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동거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동거하는 조모가 받는 지지보다 동거하지 않으면서 손자녀를 돌보아주는 조모가 받는 지지가 유의하게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지를 제공하는

〈표 2〉 동거여부에 따른 관련변인의 특성

		계	동거	비동거	검증
돌봄 지지	평균 (SD)	3.57(.68)	3.38(.75)	3.76(.62)	$t=-4.24***$
돌봄 손자 외의 관계	친손	135(53.4%)	85(61.2%)	50(43.9%)	$\chi^2=7.52**$
	외손	118(46.6%)	54(38.8%)	64(56.1%)	
	소계	253 (100.0%)	139 (100.0)	114 (100.0)	
돌봄 동기	자발적임	178(70.1%)	99(71.2%)	79(68.7%)	$\chi^2=.19$
	자발적 아님	76(29.9%)	40(28.8%)	36(31.3%)	
	소계	254 (100.0%)	139 (100%)	115 (100.0%)	
돌봄 정도	평균 (SD)	3.39(.50)	3.34(.53)	3.45(.48)	$t=-1.75$

\*\* $p<.01$ , \*\*\* $p<.001$

사람들이 손자녀의 부모나 조부 등 주위 사람들이므로 동거하는 경우 지지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의외의 결과로 여겨지지만, 비동거조모인 경우 손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확실히 정해져있으며 그 시간 동안에는 분명하게 손자녀를 돌보아준다는 인식을 하게되어 지지를 더 받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되나 추후 지지원과 지지종류를 구분하여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뚜렷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2) 돌봄손자녀와의 관계

취업모의 자녀를 돌보아주는 손자녀와 조모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친손이 외손보다 역간 많았다.

이를 동거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동거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동거하며 돌보는 손자녀는 친손이 외손보다 월등히 많으나 비동거인 조모가 돌보는 손자녀는 외손이 친손보다 많았다.

3) 돌봄 동기

취업모의 자녀를 돌보아주는 동기를 조모가 기꺼이 선택하여 돌보아주는 것인지 또는 조모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녀의 부탁 등 조모 주위 상황 때문에 어쩔 수없이 돌보아주게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자발적으로 돌보아주는 조모가 전체의 70.1%로 비자발적 동기(29.9%)로 돌보아준 경우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조모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를 동거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동거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즉 조모는 손자녀와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손자녀 돌봄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모가 손자녀 및 그 부모와 동거하는 것은 손자녀를 자발적으로 돌보기 위해 동거하는 경우가 동거하지 않으면서 손자녀를 돌보아주는 조모보다 유의하게 많지는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4) 돌봄수행 정도

조모가 손자녀를 어느 정도 돌보는 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조모는 5점 만점에 3.39 정도로 나타났다. 이를 동거와 비동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동거조모가 비동거조모보다 손자녀를 더 많이 돌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3. 조모의 돌봄만족

취업모의 어린 자녀를 돌보아주는 조모가 느끼는 돌봄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6점으로 나타나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할 때 갖는 만족감이 전체적으로 갖는 만족감은 보통의 만족감을 가진다는 선행연구(한혜자 외, 2001) 결과와 유사하다.

돌봄만족을 손자녀 가족과의 동거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동거하며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보다 비동거조모가 돌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거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위하여 낮 동안만 돌보기를 할 때와 같이 제한적인 선 안에서 이루어질 때 만족한다는 결과(Thomas, 1986)나 전일제로 돌보아주는 조모의 조모만족도가 파트타임으로 돌보아주는 경우나 손자녀를 돌보아주지 않는 조모보다 조모만족도가 낮다는 Bowers & Myers(1999)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부모세대에서도 경제적 여건만 허락된다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편리하고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어, 노후자녀와의 동별거 형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노인들은 자녀와 별거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신화경, 2003) 실제로 사회통계조사에서도 독립적으로 사는 비율이 60.2%로 나타나

〈표 3〉 조모의 돌봄 만족

	N	M(SD)	t
동거	139	3.35(.90)	-3.91***
비동거	114	3.78(.66)	
계	253	3.56(.79)	

\*\*\* $p<.001$

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를 제일로 꼽는 것(통계청, 2008)과 맥을 같이 한다.

4. 조모의 돌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동거하지 않으며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돌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에 지세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조모의 배경변인만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조모의 나이와 결혼상태가 돌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의 설명력은 0.4%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2단계 분석에서는 개인 및 환경적 자원을 첨가하여 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수준( $\beta = .26$ )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모가 지각하는 건강이 좋을 수록 돌봄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을 첨

가함으로써 설명력은 11.6% 증가되어 모델 2의 총설명력은 12.0%였다. 3단계 분석에서는 돌봄상황 요인인 조손간의 관계, 돌봄동기, 돌봄수행 정도를 첨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요인 중 지지( $\beta = .26$ )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상황요인 중 자발적 돌봄동기( $\beta = .54$ )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났다. 즉, 손자녀를 돌보게된 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2단계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주위사람의 지지가 돌봄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검토해볼 때 지지는 조모의 돌봄만족감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않지만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통해 조모의 돌봄만족감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조모의 돌봄만족은 돌봄상황요인을 첨가함으로써 20.9%나 추가적으로 설명력을 향상시켜 모델3의 총 설명력은 32.9%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비동거상태에서 손자녀를 돌

<표 4> 관련변수들의 상관관계

	돌봄만족	나이	결혼	학력	경제형편	건강상태	지지	친 외손	동기	돌봄정도
돌봄만족	1.00	.12	-.02	.07	.29**	.33***	.14	-.10	.48***	.19*
나이	-.00	1.00	-.39***	-.28**	.06	.02	-.10	.21*	.37***	-.14
결혼상태(유배우=1)	.14	-.38***	1.00	.31***	-.15	.07	.16*	-.10	-.21**	.13
학력	.24**	-.40***	.42***	1.00	.25**	-.04	.07	-.01	-.20*	.25**
경제형편	.35***	-.39***	.24**	.51***	1.00	.41***	.08	.04	.24**	.19*
건강상태	.24**	-.29**	.19*	.45***	.45***	1.00	.10	-.06	.34***	.01
지지	.46***	.16*	-.05	.07	.23**	.10	1.00	.01	-.29**	.29**
친외손(친손=1)	.03	.15*	.09	-.06	-.06	.01	-.13	1.00	.09	-.16*
돌봄동기(자발적=1)	.13	.30***	-.07	-.07	-.12	-.08	.26**	.30***	1.00	-.01
돌봄정도	.29**	-.01	.10	.11	.05	.07	.21**	-.11	.00	1.00

\* $p < .05$ , \*\* $p < .01$ , \*\*\* $p < .001$

(대각선 아래는 동거집단에서의 상관관계, 대각선 위는 비동거집단에서의 상관관계임)

<표 5> 조모의 돌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비동거조모			동거조모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배경변인	나이	.13	.13	.01	.05	.10	.07
	결혼상태(유배우=1)	.03	-.01	-.01	.16	.11	.07
자원	교육정도		.08	.14		.06	.05
	주관적경제		.14	.05		.21*	.22*
	주관적건강		.26*	.09		.08	.07
	지지		.11	.26**		.38***	.35***
상황	관계(친손=1)			-.14			.09
	돌봄동기(자발적 돌봄=1)			.54***			.03
	돌봄정도			.05			.19*
Adj R <sup>2</sup> (%)		.4	12.0	32.9	.09	27.2	29.9
F		.81	3.32**	6.56***	1.56	8.95***	7.07***

\* $p < .05$ , \*\* $p < .01$ , \*\*\* $p < .001$

보는 조모의 경우, 조모의 나이나 결혼상태, 건강이나 경제상태 등에 의해 설명되기 보다는 주위사람들의 지지와 손자녀를 돌보아주게 된 조모의 자발적동기 같은 변인에 의해 예측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모의 배경변인, 돌봄자원, 그리고 돌봄 상황 중에서 돌봄상황이 돌봄만족을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동거하며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경우에도 비동거조모의 경우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 조모의 나이와 결혼상태가 돌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자원을 첨가하여 분석한 결과 주관적 경제수준( $\beta = .21$ )과 지지( $\beta = .38$ )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모가 지각하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주위사람들의 지지가 많을수록 돌봄만족은 높아지는 것이다. 조모의 돌봄만족에 대한 설명력은 자원을 첨가함으로써 26.3%나 증가되어 모델 2의 총설명력은 27.2%였다. 3단계에서 돌봄상황 변수를 첨가한 결과 자원변인 중 경제수준( $\beta = .22$ ), 지지( $\beta = .35$ )은 유의한 변인으로 계속 남아있었고 상황변인 중 돌봄정도( $\beta = .19$ )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돌봄상황을 첨가함으로써 설명력은 2.7% 증가되어 모델 3의 설명력은 29.9%였다. 즉, 손자녀와 동거하는 조모의 경우 배경변인, 돌봄자원, 그리고 돌봄 상황 중에서 돌봄자원이 돌봄만족을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요인이며, 가족 등 주위사람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주관적인 경제수준, 그리고 돌봄수행정도 순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비동거조모와 동거조모의 돌봄만족에 대한 예측요인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먼저 조모의 돌봄만족을 크게 설명하는 요인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조모의 돌봄만족을 가장 크게 설명하는 요인이 비동거조모에게는 돌봄상황 요인(20.9%)이고 동거조모에게는 돌봄자원 요인(26.3%)이었다. 다음에, 조모의 돌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이 비동거조모의 경우 지지, 돌봄동기이고, 동거조모의 경우 경제수준, 지지, 돌봄수행 정도로 나타난 차이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비동거조모에 있어서는 돌봄동기( $\beta = .54$ )이고 동거조모에 있어서는 지지( $\beta = .35$ )로 나타난 것도 또 하나 주목할 차이점이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자녀를 돌보는 조모를 대상으로 손자녀를 돌보면서 얻는 돌봄만족감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어떠한지를 조모의 손자녀 가족과의 동거여부에 따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몇 가지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모의 돌봄만족도는 평균 3.56점(5점 만점)으로 중간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며 약간의 긍정적 경험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에 대한 연구가 부정적 경험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연구와는 달리 조모가 경험하는 긍정적 측면을 간과하지 않아야 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손자녀 가족과 동거하는 조모와 동거하지 않는 조모를 비교해보면 비동거 조모인 경우가 동거조모보다 돌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돌봄만족이 조모의 동거여부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모가 손자녀가족과 동거하며 손자녀를 돌볼 때는 손자녀를 돌보는 상황과 여타의 생활과의 분리가 힘들어 손자녀를 돌봄다는 인식이 실제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손자녀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조모가 손자녀 돌보는 것에 대해 당연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은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지지정도를 살펴볼 때 동거조모의 경우가 비동거조모의 경우보다 적게 나타난 점으로도 확인된다. 또한 조모에게 자녀돌봄 혜택을 받고있는 취업모에게 조모가 돌보아주는 이유를 묻은 결과 ‘동거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을 하는 것(정미경, 2006)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조모의 돌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손자녀 가족과의 동거여부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비동거조모의 경우 돌봄상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동거조모의 경우 돌봄자원이 중요한 자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조모의 돌봄만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조모의 거주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지지는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조모의 돌봄만족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모의 돌봄을 조사한 선행연구(김승용, 정미경, 2006; 배진희, 2007; 한경혜 외, 2008)들이 한결같이 지적한 바처럼 지지는 돌봄을 수월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만족감도 증가시킨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조모가 손자녀를 돌볼 때

반드시 개입되어야할 요소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동거조모의 경우에는 비동거조모보다 지지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돌봄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지를 강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동거조모의 경우 더욱 더 그러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승용, 정미경, 2006)에서 조모들이 손자녀 돌보는 것을 노동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정미경, 2006)고 하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대부분 동거하는 조모의 경우에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지를 많이 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넷째, 손자녀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조모의 경우, 돌봄의 자발적동기가 클수록 만족도가 큼이 확인되었다. 돌봄동기는 조모의 돌봄과 관련지어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변인이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비동거 조모의 돌봄만족 수준을 예측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으로 파악되어 조모의 돌봄만족 증진을 위하여 관심을 두어야 할 변인으로 생각된다.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이 선택적인 일이 된 오늘날 자발적인 동기를 높이는 것이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돌봄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동거의 경우보다 비동거의 경우 손자녀를 선택적으로 돌보려는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러한 결과가 비동거조모의 경우에만 나타난 본 연구결과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다섯째, 경제수준은 손자녀 가족과 동거하는 조모의 경우에 돌봄만족도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가장 기본적인 상황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조모의 돌봄만족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본 연구결과 손자녀 가족과 동거하는 조모의 돌봄만족에 미치는 영향력만 유의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조모가 빈곤할수록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가족환경을 제공하기가 어려워 스트레스를 더 쉽게 받는다는 결과(Oburu, 2005)로 유추해볼 때 손자녀 가족과 동거하는 조모의 경우 비동거조모의 경우보다 경제수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 요청되는 부분이다.

여섯째, 손자녀 가족과 동거하는 조모의 경우에 돌봄수행 정도가 클수록 돌봄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책임이 많아지면 부담감이 많아 만족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과 위배되는 결과이다. 이는 비동거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일정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자녀 돌봄이 다른 일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손자녀돌봄에 대하여 인정받기가 쉬운 반면, 동거조모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동거하는 조모에게 돌봄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손자녀를 돌본다는 자각을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다른 역할과 구분지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돌봄정도를 살펴볼 때 동거의 경우가 비동거의 경우보다 적게 나타난 점으로도 확인된다.

일곱째, 조모가 돌보는 손자녀와 조모의 관계는 비동거하는 조모의 경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동거조모의 경우 친손을 돌보는 조모는 돌봄만족이 외손을 돌보는 경우보다  $p < .08$ 수준에서 부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4, p < .08$ ). 이는 친손 즉 아들부부와 동거하지 않으며 손자녀를 돌보아주는 것은 동거하지 않으며 딸의 자녀(외손자녀)를 돌보아주는 것보다 만족도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조모가 아들부부와 동거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동거하지는 않으면서 손자녀만 돌보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생각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나, 추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한다.

우선, 본 연구모형 구성 시 돌봄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조모의 개인적 배경변인과 자원, 그리고 돌봄상황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손자녀 및 그 부모와 관련된 변인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히 손자녀 부모와의 관계는 돌봄과 같은 장기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족감에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갖는 특성이나 조모와의 관계가 돌봄만족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에 관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조모의 돌봄만족과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손자녀가족과의 동거여부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러나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돌봄만족은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이나 양적인 조사로는 측정되기 어려운 여러 다른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질적 접근을 통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돌봄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밝혀낸다면 조모의 돌봄만족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선정과정에서 확률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보완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조모의 돌봄만족을 한층 정확히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주제어** : 취업모, 돌봄만족, 돌봄정도, 돌봄동기

## 참 고 문 헌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농촌 여성노인가구의 손자녀 양육 실태와 정책과제.
- 권인수. (2000).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아동간호학회지**, 6(2), 212-223.
- 권중돈, 조주연. (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김문정. (2006).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의 양육부담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7(6), 914-923.
- 김미영. (2001).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취업모를 자녀로 둔 조모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혜, 김혜선. (2004).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4(3), 153-170.
- 김우영. (2008). 기혼여성의 맞벌이 결정요인 분석. 금융경제 연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김승용, 정미경. (2006). 손자녀 돌봄에 대한 조모 및 취업모의 인식 조사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5), 67-96.
- 김연수. (2006).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3), 371-398.
- 김혜선. (2005). 농촌과 도시지역 손자녀를 전담양육하는 저소득층 조부모의 정서적 고통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 연구**, 28(여름), 341-378.
- 박경애. (2007). 사회적지지가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보상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3), 25-45.
- 박화윤, 이영숙. (1999). 유아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9(2), 21-41.
- 배지희, 노상경, 권경숙. (2008). 조부모의 영유아기 손자녀 양육 현황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379-410.
- 배진희. (2007).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양육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9(1), 67-94.
- 백경숙, 김영란. (2006). 손자녀양육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3), 109-128.
- 보육문제 이렇게 해결을. (2009, 3. 14). 서울신문. p. 21.
- 서경현, 김영숙. (2003).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8(1), 113-131.
- 신화경. (2003). 예비여성노인의 노후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4(4), 31-38.
- 오진아. (2005). 저출산 고령화사회재고에 따른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노인의 삶의 질 구조모형. 태평양 학술문화재단 보고서, 137-196.
- 이미숙, 조병은, 강란혜. (2004). 학동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 수행. **대한가정학회지**, 42(4), 69-84.
- 이성용. (2006). 가족주의와 효. **한국인구학**, 29(2), 215-240.
- 이영자. (1999).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경. (2006). 손자녀 돌봄노동에 대한 취업모와 조모의 경제적 지원인식과 향후 출산 의사에 관한 연구. 한국열린교육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265-292.
- 정순돌. (2003). 저소득노인의 가족동거여부와 삶의 만족도. **한국가족복지학**, 11(1), 59-79.
- 조병은, 이미숙, 강란혜, 矢富直美 前原武子. (2002). 한국과 일본 취업모 가정의 조모 역할과 조모와 손자녀의 심리적복지감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1(3), 213-229.
- 최해경. (2002). 저소득층 조손가족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3), 207-22.
- 통계청. (2005). 2005년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통계청. (2008). 2008년사회통계조사.
- 한경혜, 윤순덕. (2001). 자녀와의 동 별거가 농촌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1(2), 163-178.
- 한경혜, 주지현, 이정화. (2008). 조손가족 조모가 경험하는 손자녀 양육의 보상과 비용. **한국노년학**, 28(4), 1147-1164.
- 한혜자, 류창희, 이영세. (2001). 조부모가 제공하는 도움과 이에 따른 만족도. **노인복지연구**, 11(봄), 195-211.
- 황혜정. (2003).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과 조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12), 27-38.
- Bowers, B. F., & Myers, B. J. (1999). Grandmothers

-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Consequences of various levels of caregiving. *Family Relations*, 48(3), 303-311.
- Dolbin-MacNab, M. L. (2006). Just like raising your own? Grandmothers' perceptions of parenting a second time around. *Family Relations*, 55(4), 564-575.
- Goodman, C. C. (2006).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The Vulnerability of Advancing Age*. New York: Springer Pub. Co.
- Orb, A., & Davey, M. (2005). Grandparents parenting their grandchildren. *Australasian Journal on Ageing*, 24(3), 162-168.
- Oburu, P. O. (2005). Caregiving stress and adjustment problems of Kenyan orphans raised by grandmother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1), 199-210.
- Thomas, J. L. (1986).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grandparenthood. *Journal of Gerontology*, 41(3), 417-423.

접 수 일 : 2009. 10. 12.

수정완료일 : 2009. 11. 30.

게재확정일 : 2009. 12. 08.